

회충증

요약문

• 등록일자 : 2020-04-10 • 업데이트 : 2025-03-25 • 조회 : 4249 • 정보신청 : 100

요약문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회충증은 감염형 총란(자충포장란)을 경구로 섭취하여 감염되는 기생충 질환으로, 대변 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 감염 시 영양장애,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장폐색증이나 담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감염 예방을 위해 채소를 깨끗이 씻고, 인분으로 인한 토양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치료는 알벤다졸(Albendazole) 400mg을 1회 경구투여합니다.
- 회충증은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신고 건수는 연간 10건 내외로 매우 적습니다.

개요-신고 대상 및 방법

회충(Ascaris lumbricoides)의 감염형 총란(자충포장란) 감염에 의한 기생충 질환

- 신고범위 : 환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대변)에서 회충 총란 확인

- 감염부위에서 총체 확인

-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 신고 방법 : 표본감시기관은 기생충감염병 신고서를 작성하여 질병관리본부로 팩스 또는 웹([바로가기](#))의 방법으로 신고

★ 표본감시 대상 의료기관 여부 확인: 관할 보건소로 문의

역학 및 통계

전 세계적으로는 약 8억 인구가 회충에 감염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회충증은 채소, 김치, 물, 토양 등에 묻어 있는 자충포장란(감염형 총란)을 경구 섭취하여 감염됩니다. 회충은 대표적인 토양 매개성 선충(線蟲; 가늘고 긴 선모양의 기생충)으로 우리나라도 이전에는 높은 감염률을 보였으나, 한국인 장내 기생충 감염률 실태조사 결과, 54.9%(*7), 41.0%(*76), 13.0%(*81), 2.1%(*86), 0.3%(*92), 0.06%(*97), 0.05%(*04), 0.03%(*12)로 감염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회충증은 2010년 12월 법정감염병(제5군감염병)으로 지정되어 표본감시하고 있으며, 신고건수는 연간 10건 내외로 매우 적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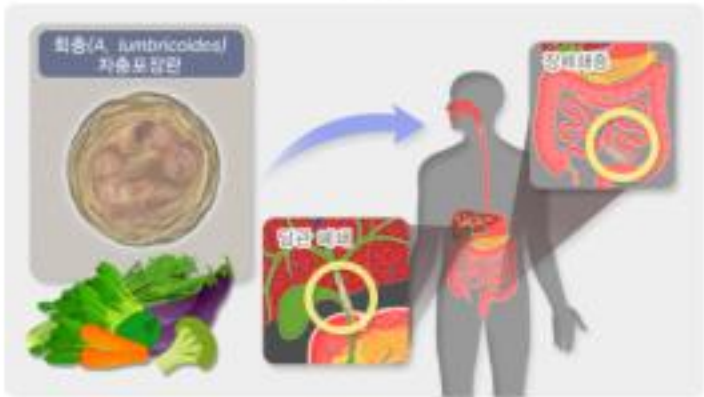
<표. 회충증 국내현황>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5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신고건수 (표본감시대상)	11건	9건	10건	8건	8건	3건	2건	4건	6건

※ 회충증 : 2011년 제5군 감염병 / (표본감시) → 2020년 제4군 감염병 / (표본감시) ※ 출처 : 질병관리본부 (2020). 감염병포털. <http://www.kdca.go.kr/nptbju/npp/foa/parasitosis/StatisticsMain.do>

증상

<그림 회충증>



회충증의 잠복기는 평균 70일 정도입니다. 회충증은 회충유충에 의해서 출혈, 염증반응, 호산구증가증(염증세포의 일종인 호산구가 증가되는 증상) 등이 나타나며, 유충을 중심으로 육아종을 형성하고, 회충성 폐렴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충은 소장 내에서 기생하면서 환자들에게 영양장애, 복통, 식욕부진,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복부팽만 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위경련과 같은 통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다수의 총체가 장내에서 뭉쳐 큰 덩어리를 만들면서 창자막힘증(ileus)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성충이 장 이외의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여,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 성충이 특히, 쓸개관 및 췌관, 충수로 탈출하는 경우가 많으며, 담관에서 발견된 회충은 황달과 담석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담관을 막거나 구멍을 내어서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 있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진단 및 검사

진단은 대변 검사를 통해서 회충의 충란을 찾아내는 것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방 및 예방접종

가장 중요한 매개물은 야채이므로 야채를 잘 씻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야채나 토양의 오염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분을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치료-약물 치료

알벤다졸(Albendazole) 400 mg을 1회 투여합니다.

대상별 맞춤 정보

회충증은 장내 기생충 질환으로, 그 환자를 따로 격리하거나 환자와 접촉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따로 관리할 필요는 없는 질환입니다.

참고문헌

1. 질병관리본부 (2020). 감염병포털. <http://www.kdca.go.kr/npt/biz/npp/iss/parasitosisStatisticsMain.do>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목록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이용안내](#) [저작권정책 및 웹접근성](#)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질병관리청
문의사항: 02-2030-6602 (평일 9:00-17:00, 12:00-13:00 제외) / 관리자 이메일 : nhis@korea.kr
COPYRIGHT © 2024 질병관리청. ALL RIGHT RESERVED

해외기관



유관기관



정부기관



※ 본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 게시물에 대한 법적책임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